

# 건축문화 사랑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20.07.128호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T. 062.521.0025 F. 062.528.0026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라북도건축사회  
발행인: 강현규, 조연준, 이길환  
창간일: 2009년 11월 10일

## 02 시론

건축과 재난: 새로운 상황에서 도전의 방향

## 03 종합

사랑에서 \_ 흔들리며 피는 꽃  
법령소식  
건축사 만평

## 04-05 광주 지역 뉴스

광주건축사회, 지역건축문화 발전 기여한 언론인·공무원 등에 감사장 전달  
광주건축사회 주도로 광주시에 건축설계공모 선진화 방안 건의 나서  
광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제한 풀어

## 06-07 전남 지역 뉴스

전남건축사회, 한국폴리텍 순천캠퍼스와 업무협약  
전남건축사회 교육위원회, 회의 개최하고 올해 실무교육 세부계획 수립  
광양시, 슬레이트 지붕 해체 처리비 지원

## 08-09 전북 지역 뉴스

전북건축사회와 전라북도, 2020 제21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공모  
전주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 지침' 본격 시행  
전주시, 전주형 도시재생 활성화 전략 집중

## 10 설계경기

순천시 신대도서관 건립 건축설계 공모

## 11 인터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정명철·이효원 위원을 만나다.

## 12 독자광장

책 소개 \_ 서울 건축 만담  
한 편의 시 \_ 너만 믿는다  
세상사는 느낌 \_ BIM 운용전문가의 길로...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 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  
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웹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 건축과 재난: 새로운 상황에서 도전의 방향



**최재혁** 본설위원

조선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jh\_choi@chosun.ac.kr

- 2006 ~ 현재  
조선대학교 교수
- 2011 ~ 2016  
스마트그린 건설기술연구센터장
- 2013 ~ 2014  
Auckland University(NZ),  
초빙교수
- 2014 ~ 2015  
조선대학교 기획조정실 부실장
- 2015 ~ 현재  
경찰청 과학수사단 자문위원
- 2017 ~ 현재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문위원

코로나 상황이 1~2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WHO에서는 치사율이 비교적 낮다는 이유로 독감의 한 종류로 편입시켜 관리하고자 한다는 보도도 있다. 이제 재난은 그냥 우리 주위에 같이 사는 셈이다. 건축물은 재해재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피해를 보는 대상물이기도 하지만 가장 원천적으로 재난을 막을 방법이기도 하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에서 원래 짓지 말아야 할 곳에 건축물이 세워지면서 피해가 더욱 컸다.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연안까지 주택과 건축물을 세웠다. 이 지역은 오래전에도 해일의 피해가 있었던 곳이다. 도시의 어디까지 침수가 되는지 마을 곳곳에 기록에 남겨져 있었다. 이렇게 수기로 남겼던 기록은 서서히 잊혀지고 다시금 피해를 보고서야 재정비되었다. 재난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결과이다.

2017년 11월 포항지진은 우리나라의 재난설계 방향을 포함 지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생각해야 할 정도다. 근래에 이런 대규모의 피해는 없었다. 대부분이 건축물의 피해로 드러났다.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 기숙사, 공동주택, 정수장, 미술관, KTX 역사 등 진앙에서 시작된 땅의 진동이 흘러간 곳이면 어김 없이 피해를 보았다. 옥상 파라펫과 조적치장벽은 쏟아져 내렸다.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1층의 벽체를 감소시킨 동일 건물 내 서로 다른 구조형식(필로티 건축물)에는 피해가 더 집중되었다. 울산(2016.7)-경주(2016.9)-포항지진까지 재난사상은 늘 상존하는 것이고 그 교훈을 바탕으로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라는 과제를 남겼다.

화재, 폭우, 침수, 지반침하, 붕괴는 도심 속에서 일어나는 더욱 잦은 재난이다. 우리는 건축물을 설계할 때 재난을 하나의 독립적인 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건축설계의 전 과정에서 통찰력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살펴야지만 미리 방지 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도 재난 재해들은 발생한다는 것이다.

건축사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 기본계획에서 더 폭넓은 검토를 통해 친환경 건축 등 과학 기술을 끊임없이 접목해 왔다. 실시설계에서 배수로를 정비하고 식생을 통해서 물의 흐름을 지연시키고 역류를 방지하는 기법도 구사하고 강화된 내진설계 기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새로운 공조설계와 불연재료 등으로 교체해왔다.

건축은 막대한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건축사가 건축물을 '설계한다는 것'은 상상을 하고 스토리를 만들고 현실적 조건을 검토해서 물리적 공간에 창출시키는 작업이다.

이제 형태가 또 다른 재난이 찾아왔다. '현실적 조건'의 검토 사항이 더욱 다양해졌다. 재난건축은 단순히 건축기준법만을 만족시킨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실내·외부의 공기압 조절 공간도 사무실마다 아파트마다 만들어 넣어줘야 할 판이다.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한 건축물이 요구되고 있다.

1인가구, 세대연대가구 등 변화하는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건축공간에서 풀어줘야 한다. 지금까지의 설계전략에서 변화가 요구된다. 재난의 측면에서 본다면 신축보다 기존 건축물이 더 심각하다.

낡은 건축물은 특히 재난에 위험하다. 그래서 리모델링이다. 리모델링은 대수선 이상의 공사가 되면 최신의 내진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1988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이 2020년의 기준을 만족해야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한 가지 예로 공동주택 수직중축 리모델링에 대해서 살펴보자, 15층은 +3개 층까지 14층은 +2개 층까지 15% 이내의 세대수 증가가 허용되었다. 도심지 주거환경개선과 동시에 자산가치 증대도 이루어지는 좋은 해법이다.

수직중축 리모델링에서 기술적 핵심은 기초가 버텨주느냐가 관건이다. 당시엔 누구든 딱 버틸 만큼만 기초를 설치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짓는' 것에만 집중한 채 노후화 이후의 건축물을 처리할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다. 낡은 건축물에 더 나은 건축물 성능을 부여해 줄 공학적 기술이 확립되어 있는지 반문하게 된다. 분명한 것은 재난 상황에서 남겨져야 할 건축이 되어야 한다.

최근의 건축학회에서는 매우 주목할 만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건축물 '성능표시제와 이력제'이다. 어떤 기준으로 설계되었고 어떤 성능을 갖도록 지어졌는지 명확해지는 것이다. 건축사들의 노고가 빠짐없이 평가받을 수 있고 제값을 받고 설계할 수 있게 된다.

결론을 맺자면, 우리는 이미 재난과 같이 살고 있고 극복할 힘은 건축사들이 가지고 있다.

보다 가볍고 강력하게

MIDAS ARCHIDESIGN **STANDARD** 정식출시!

DWG 전 버전 호환 + 연속출력 + DWG 도면분리 + 리습 + 무제한 업데이트

MIDAS 구매문의 1899 - 9260 www.midasCAD.com

MIDAS ARCHIDESIGN STANDARD 출시기념 프로모션

~~40만원~~ 35만원 1년 라이선스

~~120만원~~ 100만원 3년 라이선스

~~200만원~~ 150만원 5년 라이선스

(1Lic기준, VAT별도)

사랑에서 \_ 예수여덟 번째

흔들리며 피는 꽃

필자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조그마한 실내운동공간이 만들어졌다. 러닝머신 2대, 자전거 2대, 약간의 운동기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공용현관 앞 건물 1층에 있기에 오고 가고 할 때마다 눈에 띈다. 늘 보게 되니 자주 이용하게 되었다. 러닝머신을 이용하면서 전면에 있는 창문을 통해 밖을 볼 수 있다. 길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 단지의 푸르른 꽃 담장이 보인다. 담장은 덩굴장미로 꾸며져 있다. 올해도 많은 장미꽃이 주변에 아름다움으로 선물을 주었다.

봄바람에 꽃들이 살랑거린다. 봄비가 내릴 땐 흠뻑 젖기도 한다. 그들의 의지와는 관계 없이 살랑거리고 젖는다. 하늘의 뜻에 순응하며 생존하고, 그들의 존재 이유를 묵묵히 행할 뿐이다. 그런데 며칠 전 심한 비바람에 못 견디고 모든 꽃이 다 떨어졌다. 변화는 계절 탓도 있겠지만 더 볼 수 있었던 꽃들을 심술궂은 비바람이 일거에 떨어뜨린 것이다.

여기저기에 예쁜 꽃들이 그리도 많았건만 차량으로, 빠른 걸음으로 지나칠 땐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을, 한자리에서 일정한 곳을 응시할 수 있는 운동시간에는 자세히 음미해 볼 수 있었다. 운동이 주는 또 다른 선물이었다.

도종환 시인은 이런 꽃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시로 읊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어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워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어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이 따뜻하게 피어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며 피는 꽃>이란 시다.

나도 나약한 인간이었고, 부족함도 많았고, 아쉬운 행동도 많았다. 지금도 별반 차이 없는 것도 같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고, 주변의 분위기에 젖어 주체적 나를 잃기 쉬운 것이 사람이라고 변명도 해보면서, 이런 것이 삶이다.라고 스스로 위로도 해 본다.

힘들 때, 약해질 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남들도, 다른 생명체들도 흔들리며 성장하고, 젖으며 피어난다고. 이를 기억한다면 우울의 늪에 빠지지는 않은 삶이 될 것 같다.

요즘 코로나19의 끝이 보이질 않는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생각과 행동에 많은 변화가 있고, 문화가 바뀌고 있다. 색다른 일상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 불평불만도 늘어나고, 우울을 말하는 사람이 많다. 먹고살기도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너도나도 '흔들리는 꽃'이고 '젖은 삶'이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다. 그래도 꽃보다 나은 인간이기에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자문위원 \_ 박홍근 건축사(aforyou@naver.com)

법/령/소/식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또는 대한건축사협회(http://www.kira.or.kr) 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 2020년 8월 17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

▶ 주요 내용

- 가. 건축현장에 상주하는 현장관리인의 업무 구체화(안 제18조의3 신설)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공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관리인이 건축주 지원, 시공계획 검토 및 안전시설 설치 등 적정 공정 및 안전관리를 하도록 그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 나. 거실 내부구획 구조 및 재료기준을 구체화(안 제26조의5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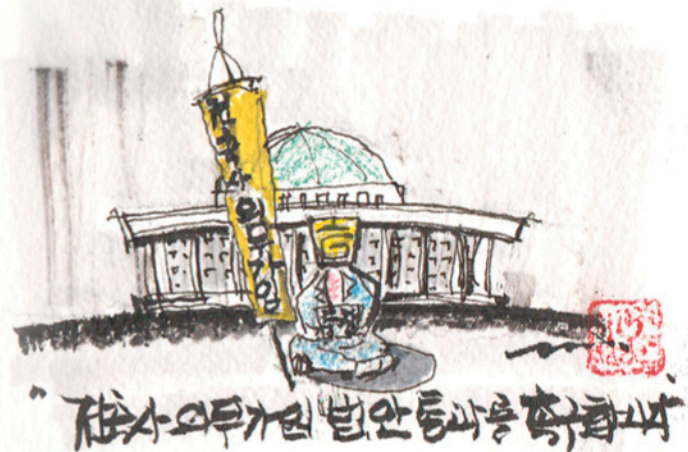
휴게음식점 등의 시설에서 다양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칸막이로 그 거실의 일부를 가로 또는 세로로 구획하는 경우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도록 함.
- 다. 공장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 완화(안 제43조제2항)
 

공장에서 물품의 원활한 입출고를 위해 그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설치하는 돌출차양에 대하여 건축면적 산정을 완화함.
- 라.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14조, 제38조의2, 제40조)
 

「건축법 시행령」 개정(20.4.21)에 따라 제105조제2항제2호를 제105조제3항제2호로 정비하고, 제40조제3항을 삭제하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19.1.15)에 따라 “제38조의2제2항”을 “제119조제2항”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19.12.24)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제2호 가목 및 나목”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8 제2호 가목”으로 정비함.
- 마. 건설재해예방지도 계약사항 기재관리 강화(안 별지 제13호 서식)
 

건축공사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별지 제13호 착공신고서식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지도의 대상여부, 계약기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

건축사 만평 \_ 심상봉 건축사 작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이본석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본석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로 82, 2층
T . 062-228-0787~8
F . 062-228-0789
M. 010-2736-0787
E . lbs0787@daum.net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 군법무관 15기 임용
- (현)광주건축사회 법률 자문변호사
- (현)광주광역시교육청 소정심사위원회 위원
- (현)전남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 (현)부동산개발협회 광주지회 자문변호사
- (전)영무토건 자문변호사
- (전)광주광역시청 법률지원 자문위원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강현구, 조연준, 이길환
창간발행인: 신정철, 김강수, 이성엽
역대발행인: 심상봉, 안길진, 국원식, 김남중, 윤문곤, 정명철, 박용득, 전병갑
초대편집인: 박홍근
편집인: 박종호
부편집인: 박주현, 임현정, 양우현
자문위원: 서재형, 정명환, 강동영
전담기자: 광승국
논설위원: 이순미, 신영은, 박신남, 강필서, 이종순, 백재봉, 정영범, 김미영, 정관성
편집위원: 윤미순, 양창근, 최정미, 김영규, 이원규, 임태형, 정영진, 허만수, 설혜순, 오선화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광고신청: T. 062)521-0025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금주: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신한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1만 원부터
- 후원방식: 신한 131-009-471898 (예금주: 광주건축사회)
  - 이주경 건축사 (주)아이에스피 건축사사무소 500,000원
  - 정현아 건축사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창 500,000원

건축문화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취득, 교수임용 등)
원고마감: 매달 25일
문의: 광주건축사회(T. 062-521-0025 / gjk@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pt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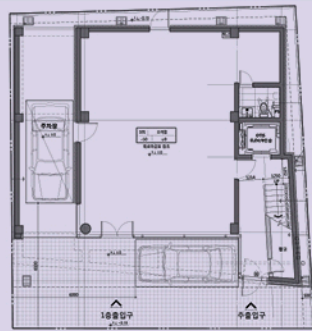
## 진미디어 신축공사

허만수 건축사  
 사계절프로젝트 건축사사무소  
 광주 북구 일곡로41번길 35, 1층  
 Tel. 062-573-3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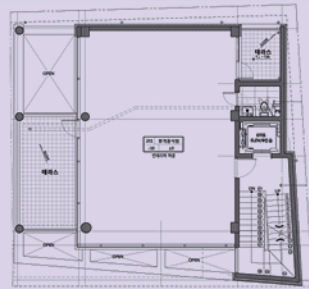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95-6 / 대지면적 : 219.7㎡ / 건축면적 : 156.25㎡ / 연면적 : 351.83㎡ / 건폐율 : 71.12%  
 용적률 : 160.14% / 규모 : 지상 4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요마감 : 스타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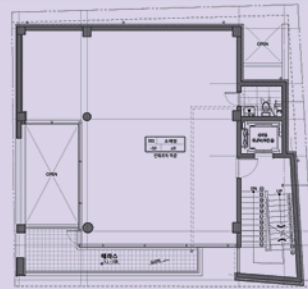
북동에 위치한 본 건물은 지상 4층 규모의 진미디어 사옥이다. 본 사옥의 위치는 재개발의 가능성을 지닌 시가지경관지구이다. 대부분의 건축주는 이러한 대지에 건물을 계획한다면, 기능에 중점을 두고 설계와 시공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진미디어 사옥은 사옥으로서의 기능과 건축물로서의 아름다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다. 미디어 기기를 다루는 공간의 특성에 따라 내부의 층고가 높게 계획되었다. 층고가 높아 개방감 있는 입면과 불필요한 장식을 배제해 단정한 건물이 완공되었다. 공간의 필요에 따라 계획된 조명이 입면의 아름다움을 더한다. 건축주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진행된 계획안인 만큼 건물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사용성과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진미디어 사옥은 본 설계사무소에서도 즐겁게 진행한 프로젝트이다. 눈에 보이는 장식과 불필요한 요소들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건물 본연이 갖는 기능과 비례, 필요한 건축 요소들의 조화로운 배치만으로도 충분히 시선을 끄는 아름다운 건물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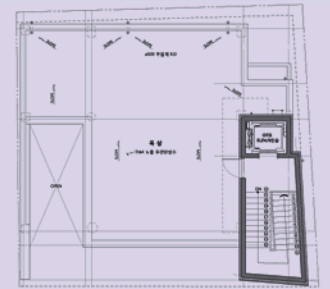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4층 평면도

## 광주건축사회,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업무대가 산정프로그램 구축 이용 안내

분리감리건축물에 대한 설계의도구현 업무대가를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대부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광주건축사회에서는 설계의도 구현비를 자동 계산하여 청구서를 출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다음과 같이 이용 안내하오니 건축사 회원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  
 (http://gjkira.kira.or.kr/) 접속 후  
 설계의도구현을 위한 대가산정 배너 클릭



설계의도 구현 업무대가 산정 클릭



1.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의해 산정된 설계대가의 8% 클릭  
 ※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은 (산정방식을 참조하여 수기계산)



① 클릭 후 계산을 위한 '용도' 및 '공사면적' 산입 후 건적구하기 클릭  
 ② 용역명-건축주-대지위치-계좌번호 산입 후 인쇄하기 클릭  
 ③ 청구서 출력

### 광주건축사회, 지역건축문화 발전 기여한 언론인 및 공무원 등에 감사장 전달 지역언론인 3인과 건축직 및 관계 공무원 8인 등 총 11인에게...



광주건축사회(회장 강현구)는 지난 6월 15일 광주 북구 중흥동 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 광주건축사회 감사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지역언론인과 공무원 등 11인에 대해 지역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하여 감사장을 수여했다.

지역언론인 수상자 3인에는 광남일보 김상훈 편집국장과 광주일보 문화부 김미은 부국장, 전남일보 박간재 경제부장이며, 관계 공무원 8인에는 광주광역시청 건축주택과 김중호 과장과 동구청 계림1동 성경훈 동장, 남구청 건축과 김인호 과장, 북구청 시설지원과 심정우 주무관, 북구청 건축과 이진 주무관, 광산구청 건축과 윤재일 주무관, 서구청 도시계획과 최희담 주무관, 북부경찰서 수사과 조윤희 수사과장이다.

이 자리에서 강현구 회장은 "이번 감사장 수여식이 우리 광주건축사회원 360여 명이 참석하는 정기총회에서 성대하게 개최됐어야 했으나 코로나19 관계로 간소하게 진행된 점 양해 바란다"고 밝히며 "수상자 모두에게 광주건축도시문화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광주건축사회와 지역 건축계 위상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한 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건축사회는 매년 건축사 회원들로부터 지역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건축직 공무원 및 관계자에 대한 감사장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아 심의를 거친 후 수상자를 최종 결정하여 감사장을 전달하고 있다.

### 광주건축사회 주도로 광주시에 건축설계공모 선진화 방안 건의 나서 참가비용 최소화와 제출서류 간소화, 심사 투명성 등을 위한 개선내용 담겨...

광주건축사회와 광주전남건축가회, 광주전남건축학회 등 광주건축 3단체는 광주시와 함께 올해 초부터 건축설계공모 선진화를 위한 협의 회의를 갖고, 지역 건축계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대두된 건축설계공모의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건축 설계공모방식은 설계자의 참여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매년 논란이 되어 건축계에서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에 광주건축사회 주도로 건축설계공모 선진화 방안을 수립하여 광주시에 건의했는데 설계비 5천만 원 이상 설계공모 적용 대상 확대와 금액별 제출 설계도서 간소화, 심사위원 POOL제 운영 및 참여 횟수 제한, 심사위원회 운영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내 건축사사무소와 30% 협업 시 가산 점 부여 등 전체적인 설계공모 방식에 대한 개선 내용이 담겼다. 광주시는 해당 내용을 검토한 후 제도정비에 나서 8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강현구 회장은 "설계공모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많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3단체 연합을 주도하여 광주시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였다"고 밝히며 "8월 시행 전 만반의 준비를 하여 설계공모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 광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제한 풀어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7월 1일 자 실효 고시

광주광역시시는 1일부터 최초 시행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관련해 일몰대상 도시계획시설의 실효고시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수십 년간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토지 상당수가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건축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시 관할 주요 도로, 공원 등 주요 시설 총 114곳 2.6km<sup>2</sup>, 자치구 관할 미집행시설 총 525곳 1.8km<sup>2</sup>에 대해 1일 자로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했다. 그동안 시와 5개 자치구는 실효에 대비해 관내 주요 미집행시설에 대한 현황을 조사해 장기간 미집행되고 당장 집행계획이 없는 시설을 구분해 대상을 확정하고 실효를 준비해 왔다. 실효고시는 시와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고, 변경된

토지이용규제 사항은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또는 구청 지적부서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을 요청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광주시는 이번에 일부 실효되는 공원과 유원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로 변경 지정해 해제지 주변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심 내 양호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도록 했다.

### 광주 동구 동명동, 광주 대표문화마을로 조성된다

#### 4가지 테마축 중심으로 골목길 정체성 회복, 근대자산 활용 문화거점 공간화

광주시는 지난 6월 25일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이용섭 시장과 관련 분야 전문가, 광주 동구 및 주민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명동 문화마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광주다움을 담은 대표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총 170억 원을 투자해 동명동 일대 노후 골목길의 정체성 회복, 근대자산을 활용한 문화 거점공간 리노베이션, 다양하게 형성된 로컬샵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등을 펼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동명동 일대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 철거된 광주읍성의 동문 밖 동계천 주변에 형성된 주거지역으로 광주시 형성과 확산 과정에서 역사, 교통, 교육, 행정, 문화, 사업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했다. 타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근대도시 형성이 도시구조와 시대의 흐름을 보여주는 독특한 양식의 건축물을 간직한 장소이면서 곳곳에 문화공간, 이색적인 카페, 맛집, 공방, 건축사사무소 등이 들어서면서 젊은 세대와 관광객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은 동명동만의 독특한 지역정체성(로컬리티)을 공간으로 구현하고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창의적인 흐름을 촉진하고 연결하기 위해 새로운 활력을 담아, 이 같은 공간환경이 문화와 생활산업으로 확장돼 지역발전을 추동하고 아시아문화전당과 전일빌딩245, 양림동 공예특화거리 등 광주의 핵심문화시설과 연계, 관광 자원화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동명동 일대의 동계천로 남·북축과 동·서축, 장동로, 동명로 주요 거리를 각각 체험과 문화의 거리, 쉼과 휴식의 거리, 만남과 놀이의 거리, 소통과 상생의 거리 등 4가지 테마를 입히는 사업이 진행되고 4가지 테마거리는 스토리텔링작업과 함께 최근 각광 받고 있는 도심형 도보 관광트렌드에 맞게 인근 ACC, 전일빌딩245, 양림동 공예특화거리, 예술의거리, 오월길(5-18 Road) 등과 연계해 광주의 삼향(의향, 예향, 미향)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광주의 대표 문화·관광 축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문화마을 마스터플랜수립용역(마스터플래너 : 전남대 건축학부 오세규 교수)은 지난해 5월에 착수해 주민의견수렴, 주민 설명회, 동구청 및 전문가 협업과정을 거쳐 완료하였으며, 광주시는 올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 마스터플랜에 담겨진 실행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 나무심는 건축인, '2020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공모

####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접수, 광주 소재 대상 건축물로...



나무심는 건축인(회장 신정철 건축사)과 광주시는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하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장려하기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2020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대상 작품들을 공모한다.

공모대상은 건축물 공개공지, 담장가로 및 쌈지공원 벽면 및 옥상녹화, APT 등이며 참가자격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작품 제출은 A3규격에 설명서 및 장소 내용과 사진을 포함하여 5매 이내로 나무심는 건축인 사무처(광주 서구 시청로96번길 12, 310호/치평동 골든빌)에 제출하면 된다.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된 3곳에는 광주광역시장과 기념 동패를 수여하며, 오는 10월 광주광역시 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리는 광주도시건축문화제에 전시된다.

자세한 사항 및 문의는 나무심는 건축인(TEL. 062-383-0925)으로 문의 바란다.

### 광주 회원동정

- **입회**  
- 김기현 건축사 / 다미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상무연화로 96, 유지빌딩 4층
- **전출**  
- 김원석 건축사 / 이슬 건축사사무소 / 전남전출
- **변경(소재지)**  
- 김종환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신아 / 광주 남구 대남대로 97, 2층  
- 명성원 건축사 / 엠제이 건축사사무소 / 광주 광산구 단전상길 6, 301호  
- 안성섭 건축사 / (주)우도 종합건축사사무소 / 광주 광산구 하남울로 10, 802호

공화동1291-1

김용일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다음  
 전남 여수시 시청사2길 39-5, 2층  
 Tel. 061-692-6678



대지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공화동 1291-1번지 / 대지면적 : 122㎡ / 건축면적 : 81.84㎡ / 연면적 : 155.93㎡ / 건폐율 : 67.08% / 용적률 : 127.81%  
 규모 : 지상 2층 / 주용도 : 근린생활시설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주요 마감 : 두라스택 롱브리

전남건축사회, 한국폴리텍 순천캠퍼스와 업무협약

지난 6월 24일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협력키로



전남건축사회(회장 조연준)는 지난 6월 24일 한국폴리텍대학 2층 기업지원실에서 조연준 회장과 조익선 순천지역회회장, 박미라 이사, 한국폴리텍 순천캠퍼스 임종대 학장과 교학처장, 행정처장, 산학협력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남건축사회 조연준 회장은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능력 중심 사회 구현과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도래에 발맞춰 지식 기반산업의 육성과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인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함께 인식함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체결로 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는 전남건축사회에서 의뢰하는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소속 재직자들을 위한 산학협력사업 및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제공하기로 했고, 전남건축사회에서는 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 산학협력 교육훈련 사업에 적극적인 협력과 현장실습 및 취업 홍보에 협력하기로 했다.

전남건축사회 교육위원회, 회의 개최하고 올해 실무교육 세부계획 수립

지난 6월 26일 장흥 목재산업지원센터... 오는 8월부터 교육 시작 예정



전남건축사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장흥 목재산업지원센터에서 교육위원회 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백재봉 위원장을 비롯하여 박종호, 정원석, 안재선, 유성우 위원이 참석하여 2020년도 건축사 실무교육 실시계획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교육 내용 확인 및 신청은 오는 7월 20일부터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http://www.kiraeb.or.kr/>)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다음은 2020년 건축사 실무교육 일정이다.

일자	구분	교육과정명	시간	강사명	교육장소
8월 26일 (수)	윤리교육	현대인의 윤리 의식과 문학적인 감수성	12:30 ~13:30	한승원 작가	전남여성가족재단 1층 공연장 061-260-7300 무안군 삼함읍 어진누리길 30
	전문교육	구조계획·설계 시 유의사항 및 구조안전확인서 내용이해	14:00 ~15:30	이강근 겸임교수 (건축사)	
	전문교육	지역건축자산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 사례	16:00 ~17:30	정종민 겸임교수 (건축사)	

일자	구분	교육과정명	시간	강사명	교육장소
8월 28일 (금)	윤리교육	인간의 도덕: 윤리학과 인지과학	12:30 ~13:30	서명원 교수	전남테크노파크 지식산업센터 1층 대강당 061-729-2500 순천시 해룡면 울촌산단4로 13
	전문교육	지역건축자산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 사례	14:00~ 15:30	정종민 겸임교수 (건축사)	
	전문교육	구조계획·설계 시 유의사항 및 구조안전확인서 내용이해	16:00 ~17:30	이강근 겸임교수 (건축사)	

광양시, 슬레이트 지붕 해체 처리비 지원

주택 최대 344만 원 지원, 주택 외 건축물 최대 1,500만 원까지 차등 지원

광양시는 지난 6월 25일 슬레이트 지붕 노후화가 심각한 주택 및 독립된 축사, 창고, 점포, 공장 등 주택 외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해체 처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택의 경우 최대 344만 원을 지원하며, 주택 외 슬레이트 건축물은 168㎡ 이하 최대 336만 원, 168㎡ 초과~500㎡ 이하 500만 원, 500㎡ 초과~1,000㎡ 이하 최대 1,000만 원, 1,000㎡ 초과 최대 1,500만 원까지 슬레이트 면적별로 차등 지원한다.

또한, 사회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는 슬레이트 지붕 처리비뿐만 아니라 지붕개량비를 최대 625만 원까지 지원한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희망하는 건물주는 건축물이 소재한 읍·면·동사무소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에서 선정한 민간위탁사업자가 슬레이트 면적 등 현장 조사 후 일정에 따라 철거공사를 시행한다.

무허가 건물은 지방세 납부 실적이 있는 주택의 경우 슬레이트 면적별로 차등 지원하고, 지방세 납부 실적이 없는 주택과 주택 외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을 전부 철거해야 지원한다.

전남도, '민간전문가' 제도 시행... 총괄건축가 위촉, 공공건축가 모집

동신대 손승광 교수 초대 총괄건축가로 위촉, 공공건축가 7월 14일까지 신청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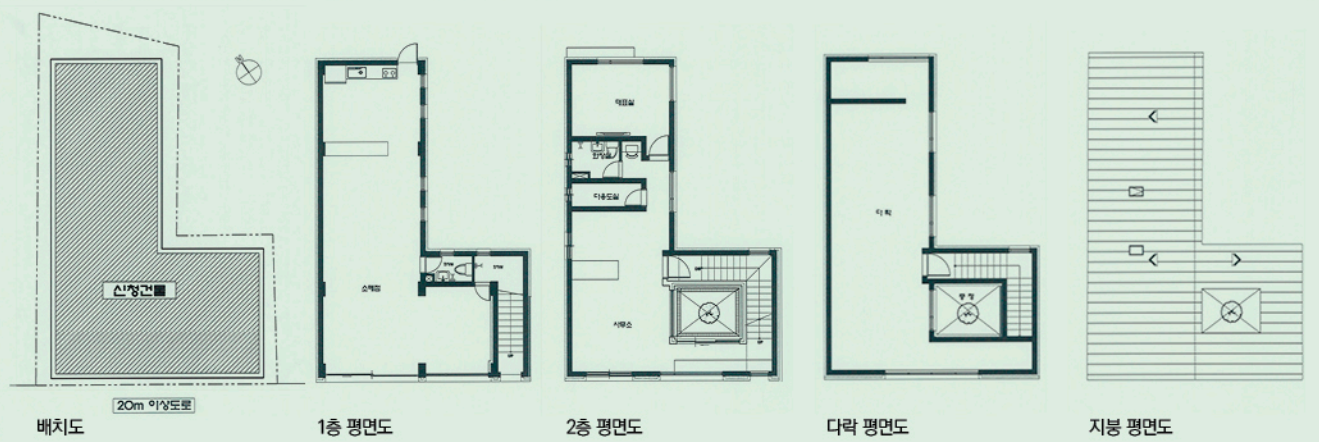
손승광 교수

전라남도는 건축·도시·조경 분야 민간·행정전문가와 전남의 아름다운 도시 미래를 그리기 위한 '민간전문가' 제도 시행에 나섰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민간전문가' 제도는 공공건축물이 도시미관과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준 중요한 자원임에도 획일적인 디자인과 공급자 중심의 계획 등으로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도입된 제도다.

전라남도는 공공건축을 발주한 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지역 내 개별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최근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손승광



오래된 건물들이 많은 구도심 지역의 작은 대지의 조건으로 최대한의 채광, 환기, 조망에 대한 확보가 큰 숙제였다. 2층에서 실에 대한 면적 손실이 크지만 건축주를 오랫동안 설득한 끝에 과감히 중정을 넣어 밝은 햇빛과 바람으로 답답함을 해소하고 마음의 편안함을 제공하였다. 다락에서는 창문 너머로 여수엑스포와 아름다운 바다를 볼 수 있는 좋은 조망을 가지게 되었고 가로수 은행잎이 노랗게 변화될 때쯤이면 그림 같은 액자를 실내에서도 볼 수 있게 되었다. 건축주의 과감한 시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좋은 에너지를 내는 건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교수를 초대 총괄건축가로 위촉했다.

총괄건축가는 앞으로 2년간 지역 건축 정책을 총괄하고, 공공건축가 30명과 함께 도가 추진할 공간 정책과 전략 수립에 대한 자문을 비롯해 주요 사업의 기획·설계, 시행과정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공공건축가는 건축사와 건축·도시·조경 관련 기술사 및 대학교수 등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신청은 전라남도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오는 7월 14일까지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이메일(artlim21@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전라남도는 민간전문가가 공공건축물, 도시재생뉴딜, 생활SOC사업, 어촌뉴딜 등 도내 주요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 사업을 대상으로 기획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자문과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던 개별 공공건축 사업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사업부서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구 목포세관 본관 터 및 창고, 국가 등록문화재 됐다

문화재청 지난 6월 24일 등록문화재 제786호로 등록 고시



구 목포세관 본관 터 및 창고가 국가 등록 문화재가 됐다. 목포시는 문화재청이 지난 6월 24일 최초 자주 개항의 상징성을 지닌 '구 목포세관 본관 터 및 창고'를 등록문화재 제786호로 등록 고시했다고 밝혔다.

목포세관은 1897년 10월 1일 목포 개항과 동시에 해관(海關)이라는 명칭으로 관세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1907년 세관으로 개칭된 뒤 목포진에서 1908년 현재 위치(항동 6-33)로 옮겨와 건립됐다.

당시의 세관 본관은 1950년대 멸실되고 1955년 신청사가 신축되어 1967년 목포세관이 삼학도로 이전하기 전까지 관세 업무를 보았으며, 이후 완전히 멸실되어 지금은 터만 남아 있다.

현재 남아 있는 구 세관 창고는 1950년대 준공된 공간으로 세관 관련 건물이 대부분 사라진 상황에서 당시 세관의 흔적을 보여주는 유일한 공간으로서 가치가 높다.

지난 3월 목포시는 세관 부지에 대한 표본조사를 통해 세관 본관의 유구(옛날 토목건축의 구조와 양식 따위를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잔존물)를 확인했다.

일부 확인된 적벽돌조 기초부 및 기초석 등을 통해 군산 세관 본관(사적 제545호)과 유사한 구조임을 밝혔으며, 개항도시의 중요한 건축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이번에 구 세관 창고와 함께 문화재로 등록됐다.

목포시는 앞으로 세관 본관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유구의 규모와 특징을 자세히 확인하고, 구 세관 창고 보수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 1930년대 나주 지역 최초 극장, 문화공간으로 재탄생

나주시, 문체부 '유휴공간 문화재생 기본구상방안 연구대상지' 공모 선정



2020년 현재 옛 나주극장

193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나주 지역 최초 극장으로 지역민과 희로애락을 함께해 왔던 옛 나주극장을 문화재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시작된다.

나주시는 옛 나주극장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유휴공간 문화재생 기본구상방안 연구대상지'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 6월 초 밝혔다.

나주시에 따르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은 유휴공간으로 남겨져 방치된 산업단지, 폐 산업시설 등을 문화적 환경을 갖춘 장소로 재창조해 지역 문화 진흥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물리적인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적 재생을 통해 지역만의 고유한 특성이 담긴 장소로 만드는 것이 주목표다.

공모 대상지로 선정된 옛 나주극장(금성동14-1)은 나주 지역 최초 극장으로 1930년대 당시 나주천 정비사업을 통해 조성한 하천부지에 소주공장, 잠사공장 등 산업시설과 함께 들어섰다. 1990년대 극장 문을 닫기까지 정치·사회·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이자 시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해온 대표적 근대문화시설로 꼽힌다.

나주시는 공모 선정에 따라 (재)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유휴공간 소재 지역 기초현황 및 환경 분석', '옛 나주극장 현황분석 및 문화재생 방안 수립', '국내·외 유사 사례 소개 및 문화재생사업 추진단계별 프로세스 제안', '문화재생 추진 기대효과 등에 대한 연구'에 착수해 내년 1월 연구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 순천시, '2020년 아름다운 건축상' 작품 공모

- 응모대상 : 2016년 이후부터 작품 접수일까지 사용승인 된 순천시 소재 건축물
- 응모구분 : 주거와 비주거 / 우수작 1개소,佳作 2개소 선정
- 접수기간 : 2020년 10월 14일부터 10일간
- 접수방법 : 응모를 희망하는 설계자와 건축주는 순천시 건축과에 응모신청서와 작품설명서, 심사용 패널 등 응모서류를 제출
- 문의 : 순천시 건축과(061-749-6379)

### 전남 회원동정

- **입회**
  - 문일환 건축사 / 다온 건축사사무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진각로 175, 2층
  - 김성국 건축사 / 포텐 건축사사무소 / 전남 나주시 완사천길 18, 301호
- **퇴회**
  - 김행범 건축사 / 도시 건축사사무소 / 전남 순천시 장자보3길 58

## 전북건축사회와 전라북도, 2020 제21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공모 사용승인·학생·건축사진 부문... 응모작품 접수 오는 10월 6일부터 7일까지...



전북건축사회(회장 이길환)와 전라북도는 건축문화의 질적인 향상과 아름다운 건축물을 확산하고 나아가 건축문화의 미래를 이끌어갈 건축인을 발굴하기 위해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출품 작품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에 시작한 건축문화상 공모는 올해 21회를 맞이하여 전북의 건축문화 발전과 건축인의 창작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우리 도의 건축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올해 추진되는 건축문화상 공모는 사용승인 부문, 학생 부문, 건축사진 부문으로 나눠 진행한다.

사용승인 부문은 도내에 준공된 우수한 건축물의 설계자·시공자·건축주가 대상이며, 학생 부문은 건축계획과 기술계획으로 출품하여 대학생의 창의적 작품을 시상하게 되며, 건축사진 부문은 도내 건축물을 소재로 한 건축사진 작품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응모작품 접수는 오는 10월 6일부터 7일까지이며, 접수된 작품은 건축사를 비롯한 건축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부문별 수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건축문화상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도정정보-알림마당-공고/고시) 및 전라북도 건축사회 홈페이지(<http://jbkira.kira.or.kr>, 알림광장-전북건축문화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출품작품 중 심사를 거쳐 당선된 작품에 대해서는 도지사상과 각 단체장상을 수여하고 작품 전시회를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도청 1층 로비와 전시실에서 가질 계획이다.

## 전주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 지침' 본격 시행

기획 단계에서부터 기획안 심사 의무 이행, 설계공모 응모 위한 제출서류도 간소화 등

전주시가 공공건축물 설계 시 공정성을 확보해 최고 수준의 건축물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시는 투명하고 질 높은 심사를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마련된 '전주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전주만의 특색 있고 매력적인 공공건축물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지난 6월 29일 밝혔다.

특히 시는 설계비 1억 원 이상 공공건축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의무적으로 사업 타당성과 디자인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기획안 심사를 이행하고, 심사과정을 유튜브

나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외부에 공개하는 등 설계공모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또 심사위원회의 경우 전주시 총괄조경건축가를 비롯한 교수, 건축사로 구성된 전주시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사위원장을 선정하고, 1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참여해 공정한 심사는 물론 전주만의 설계지침을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건축물의 용도와 성격에 맞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기본 구상에 포함하고 설계공모 공고 시 구체적인 설계지침을 제시키로 했다.

나아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디자인이 변경되지 않고 설계 의도를 살려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시는 설계공모 응모를 위한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좋은 기획안과 아이디어를 가진 건축사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기존의 공공건축 설계 운영지침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전주시만의 운영지침을 시행해 독특한 도시경관과 품격 있는 도시디자인으로 전주다움을 되찾고 지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전주시, 전주형 도시재생 활성화 전략 집중

지난 6월 23일 활성화계획안 자문 위한 제1차 도시재생위원회 개최

전주시는 지난 6월 23일 교수, 건축사, 연구원, 중간지원조직 관계자, 시의원 등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계획안 자문을 위한 '2020년 제1차 전주시 도시재생위원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과 태평·다가지역 활성화계획(안), 도시재생 인정사업 '다가서당 프로젝트', 차 없는 사람의 거리 운영단체 선정 등의 사항들이 논의됐다.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의 경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을 위해 태평·다가지역의 인접 구역을 추가, 확대하는 내용과 주거지재생 공모사업을 위해 산단 지역과 주거지 밀집 지역을 세분화하는 내용이 설명됐다. 또 '무형문화유산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을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공모하기 위해 서학 활성화 지역의 일부를 활성화 지역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는 또 올해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예정지인 태평·다가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는 완산구 태평동 일대 17만4500㎡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관계인구 확보를 통한 경제재생, New 하숙을 통한 커뮤니티 재생, 꽃, 별, 한옥이 있는 주거지재생, 도시재생의 지속성 확보 방안 등이 소개됐다.

이외에도 다가동 일원에 주민 거점시설과 주차장 조성, 소로 개설 등이 펼쳐지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인 '다가서당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설명과 함께 총경로 차 없는 거리 운영단체 선정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됐다.

시는 이달 이같은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해 최종 고시할 방침으로 태평·다가지역에 대한 2020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도 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 미륵산골

이균수 건축사 / (주)맥 건축사사무소  
전북 익산시 인북로 219-1  
Tel. 070-4241-9416

대지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연동리 212 / 대지면적 : 5,098.00㎡ / 건축면적 : 499.34㎡ / 연면적 : 499.34㎡  
 주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마을공동작업소) / 규모 : 지상 1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주요 마감 : 리얼핑크, 알미늄슈트, 섬유강화치장패널, 시멘트보드





### 군산시, 주민과 함께하는 소규모도시재생사업 순항 중

'18~'19년 국토부 공모로 선정된 소규모도시재생사업 순차적 추진, 성공적인 마무리 박차

군산시가 '18~'19년 국토교통부 공모로 선정된 소규모도시재생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며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소규모도시재생사업은 지역 주민공동체가 추진하는 소규모 점단위 재생사업을 지원하여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공동체가 직접 사업내용을 발굴하여 신청하는 주민제안 성격에 의의가 있다.

사업내용은 주민공동체 거점공간 조성, 경관개선, 가로환경 정비 등의 사업과 주민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발전 등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목적의 사업이 있다.

'18년 선정된 흥남동은 어르신 소식지 제작, 장터 운영, 미원광장 비가림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조형물 제작을 남겨두고 있으며, 같은 해 선정된 영동은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디자인벤치 설치 및 거리공원 추진을 통해 밝고 활기찬 영동거리 조성을 도모하고 있다.

'19년 선정된 월명동의 경우 군산 우체통거리 경관협정운영회의 주도로 우체통거리백서 제작, 주민거점공간 조성 등의 가시적 성과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을 연기한 제3회 손편지축제를 하반기 중 개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장미동은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을 5~6월간 진행하여 주민협의체를 재정비하고, 주민 제안을 바탕으로 가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자주 찾는 재밌는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 정읍시, '2030 정읍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전북도 최종 승인

국가정책과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재생사업 방향 설정

정읍시가 민선 7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 여건 변화에 맞게 2030년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변경한다.

향후 도시재생의 방향 재설정을 위해 전략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가정책과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함이다.

관련해 지난 6월 18일 시가 수립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이 전북도 최종 승인을 받았다. 지난해 8월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용역에 착수해 주민공청회, 시의회 및 관계부서 의견 청취, 전문가 자문, 전라북도 도시재생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번에 변경되는 전략계획은 '다양함과 풍요로움이 있는 도시재생, 함께 나아가는 정읍'을 비전으로 지역 상권과 공동체 회복, 근린재생 실현, 지역별 맞춤형 재생을 추진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시에 따르면 앞서 지난 2015년 12월 최초 수립된 '정읍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의 새로운 비전과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중앙로·터미널 역세권·초산 활성화 지역 3개소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3개소의 도시재생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계획안 변경에 따라 앞서 선정된 활성화지역을 세분화하고 신태인역 주변과 태인향교 주변을 포함해 총 14개소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했다.

한편, '정읍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보고서는 정읍시청 도시재생과에 방문하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 남원시, 슬레이트 철거사업 조기 추진 완료

전북 14개 시군에서 가장 빨리 조기 추진 완료돼



남원시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슬레이트 철거를 위해 연초부터 추진했던 상반기 슬레이트 철거사업이 전북 14개 시군에서 가장 빨리 조기 추진 완료돼, 관심이 집중된다.

시는 시민 건강보호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연초부터 건축물의 지붕재 슬레이트를 해체·처리하는 2020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을 시행해왔다.

시는 이번 사업 추진으로 실생활과 밀접한 슬레이트 지붕으로 인한 석면 비산에 따른 건강유해요소를 제거해 시민들의 안전에 기여했다.

특히 시는 올해 전년도 물량 대비 45% 증가된 290동 중 275동, 올해 새로이 추가된 비주택 18동, 지붕개량 12동을 추진, 주택부지 내에 있는 건축물에 한해 시민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고 건강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전액 지원,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상반기에 이룬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하반기에도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사업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시민들은 추후 시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거나, 해당 건축물의 소재지의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전북 회원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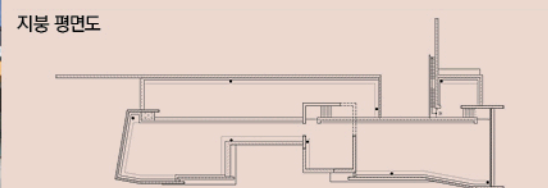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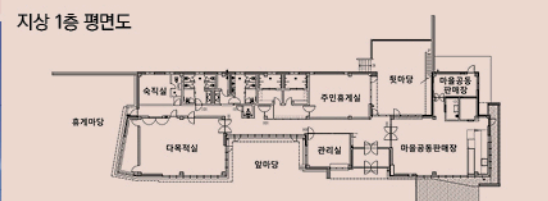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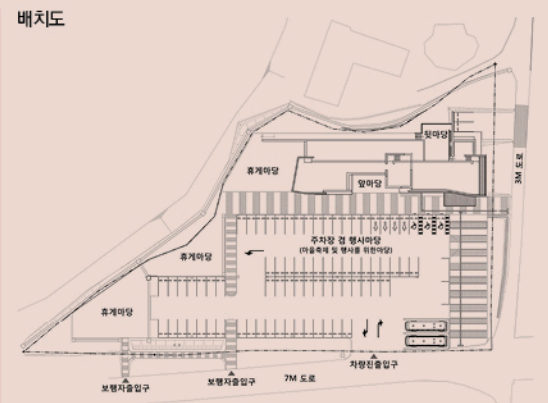
- 전입
  - 국 현 건축사 / 행복 건축사사무소 / 전북 군산시 조촌4길 15
- 변경(소재지)
  - 이영창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국도 / 전북 군산시 미장안7길 16
  - 선태훈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더함 / 전북 군산시 미장안7길 16
  - 한성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아이든 / 전북 군산시 미장안7길 16
- 결혼
  - 임순호 건축사 / 금호 건축사사무소 / 장녀 결혼 - 06월 28일(일)
- 부고
  - 주영민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건우설계 / 빙부상 - 07월 08일(수)



익산시의 '미륵산권역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중 마을주민들의 공동사업을 위한 다목적센터는 인접한 '죽청천'과 '미륵산'의 아름다운 풍경과 어우러진 장소에 위치해 있다.

다목적센터는 마을주민들에게 화합과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되고, 미륵산을 찾는 등산객에게는 안락한 휴식공간이 되고 있다.

특히, 설계자는 앞마당과 뒷마당을 배치하여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아내고, 수평적 건물 형태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 순천시 신대도서관 건립 건축설계 공모

신도시 개발에 따른 거점도서관 건립으로 생태문화도시에 걸맞은 지역과 역사가 함께하는 미래지향적 지식·정보·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품질과 품격을 확보하고자 함. 창의적이고 예술성, 작품성을 갖춘 건축 계획안을 선정하여 우수한 디자인의 도서관 건립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최적의 독서문화서비스 제공하기 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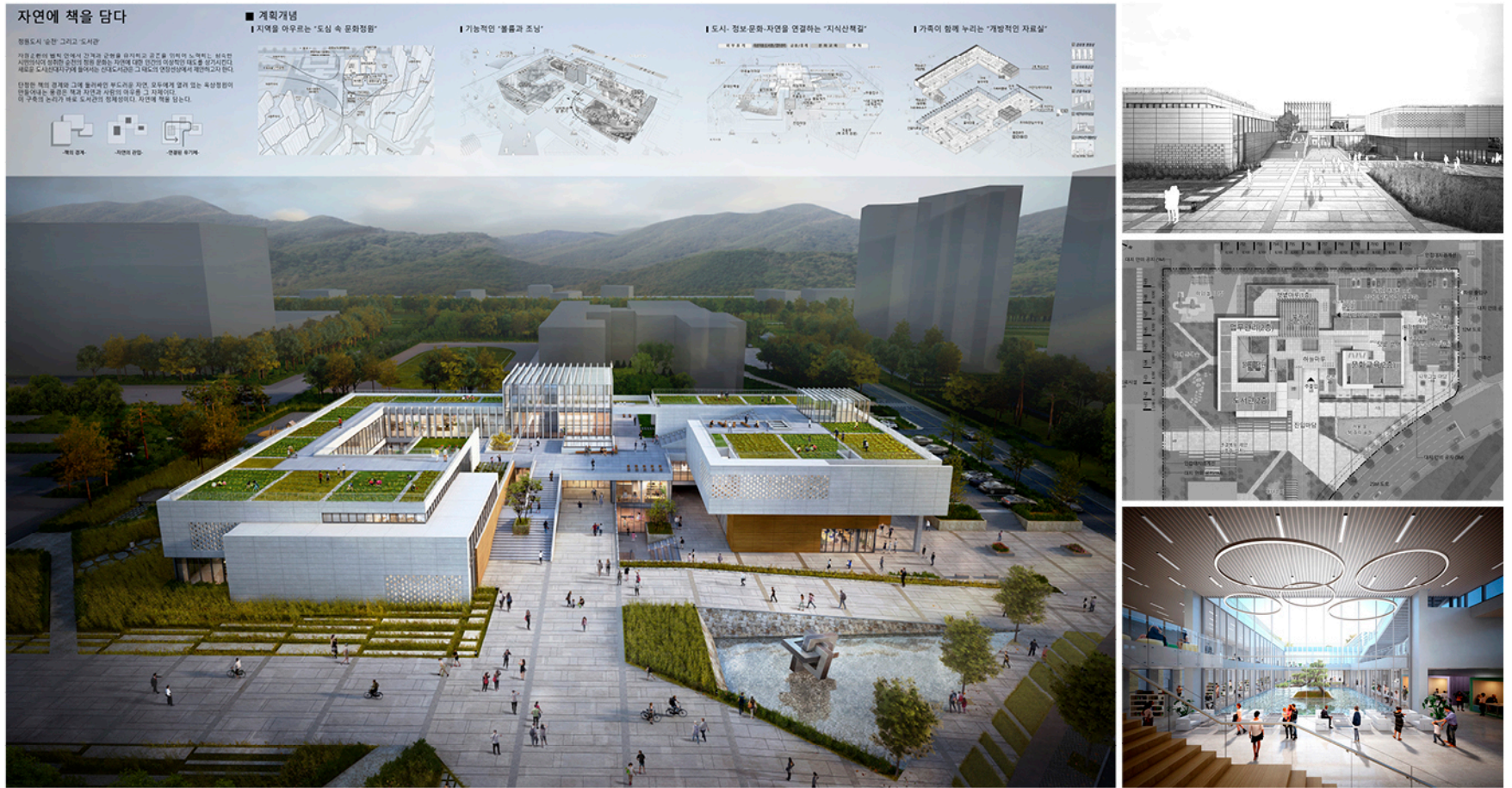
심사위원 : 최병관(공주대), 김근성(경남과학기술대), 김영석(충남대), 노승범(한양대), 장순모(왕조1동 동장)  
정광용(순천제일대), 정광호(삼육대), 정상택(낙안읍성지원사업소 소장), 조연준(창조 건축사사무소)

- 대지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2040번지
- 대지면적 : 18,910.0㎡ • 연면적 : 5,300.0㎡(범위내 조정가능) •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 지역지구 : 2종일반주거지역,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경제자유구역

당선작 : (주)건축사사무소 휴먼플랜  
입선작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선기획  
\* 자료 미제출  
입선작 : (주)고려적산 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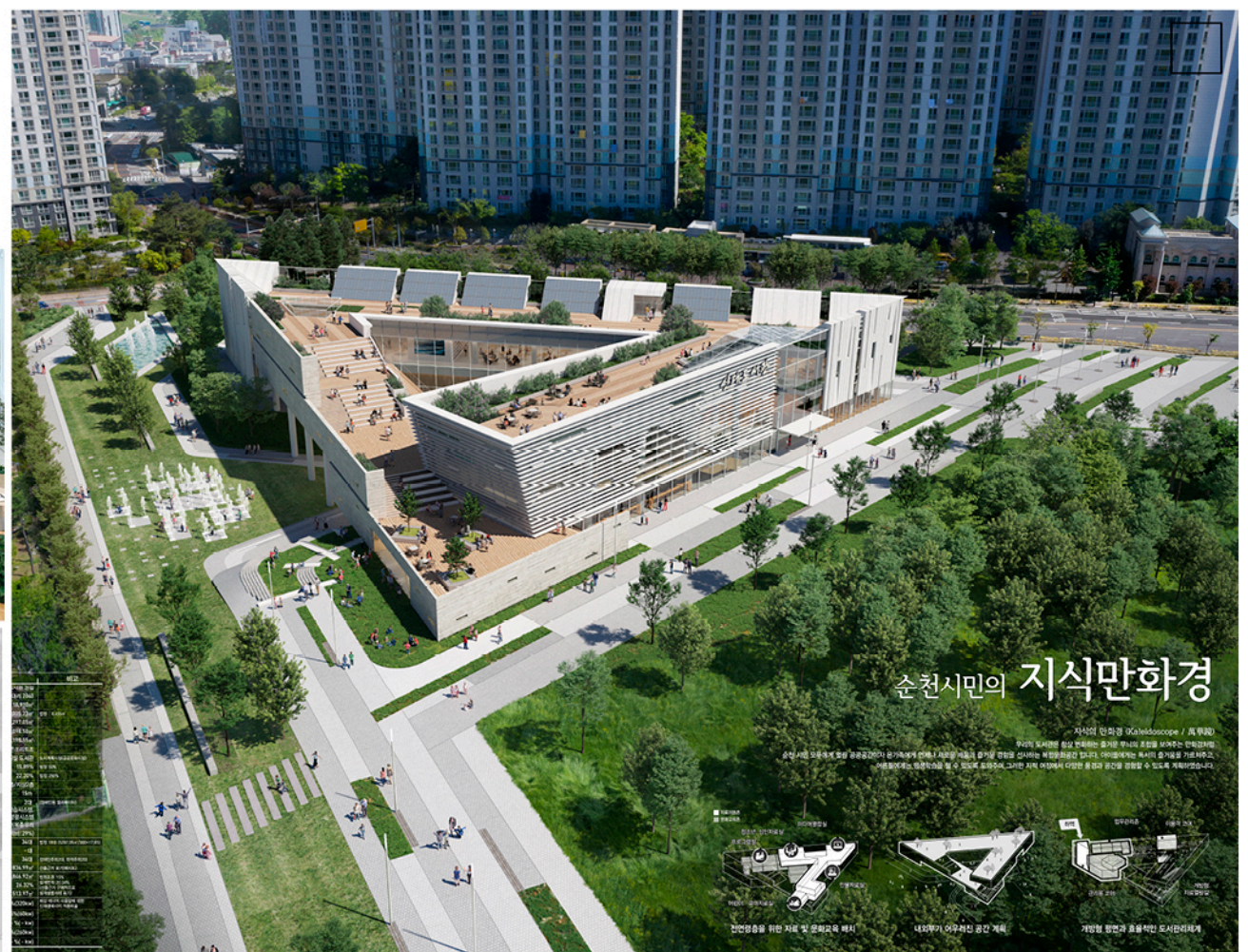
### 당선작

양병법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휴먼플랜



### 입선작(3등)

정운기 건축사  
(주)고려적산 건축사사무소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정명철·이효원 위원을 만나다.

국가건축과 도시정책을 총괄하는 '제6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가 지난 5월 출범했다. 국건위는 2007년 '건축기본법' 제정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국가의 건축정책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관계 부처 건축정책의 심의·조정 역할을 한다. 2008년 제1기 국건위를 시작으로 올해 6기 국건위(위원장 박인석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교수)가 구성되었으며 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19명과 당연직 위원 11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본지에서는 우리 호남지역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주)에이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 정명철 건축사와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이효원 교수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 편집자 주



(주)에이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  
정명철 건축사

- 광주대학교 건축공학 학사/전남대학교 건축공학 석·박사
- 2000년 ~ 현재 : (주)에이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 대표
- 2015년 ~ 2018년 :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회장
- 2018년 ~ 2019년 :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장
- 2019년 ~ 현재 :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 2020년 ~ 현재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이효원 교수

- 전남대학교 건축공학 학·석·박사
- 2003년 ~ 현재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2014년 : 대한민국건축문화제 위원장
- 2015년 :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큐레이터
- 2018년 ~ 현재 : 한국건축역사학회 이사
- 2020년 ~ 현재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 □ 질의내용

- 질의1.**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질의2.** 제6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건축정책 방향성과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3.** 제6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출범식에서 "좋은건축, 열린도시"를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좋은건축과 열린도시를 만들기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 질의4.** 새롭게 출범된 6기 국건위에는 비수도권 전문가가 많이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건축계의 목소리를 듣고자 함인 듯합니다. 지역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또 실무를 하면서 느꼈던 지역 건축계의 개선 등이 필요한 현안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 질의5.** 기타 하시고 싶은 말씀 또는 시민, 교수, 건축사, 건축인 등에게 당부의 말씀 바랍니다.

- ▶ 규제 중심에서 활성화 중심으로 건축법을 전부 개정하는 것이 목표.
- ▶ 건축사사무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연구가 필요.
- ▶ 총괄건축가 제도 정착 위해 광주건축계가 많은 협조.

- ▶ 제6기는 '좋은건축, 열린도시'라는 목표로 5기 정책과제 연장선...
- ▶ 소규모 공공건축 설계공모 중점적으로 개선, 설계비 효율 상향 유도.
- ▶ 건축설계공모와 관련해 지역건축계도 경쟁의 건강성이 회복됐으면.

**답변1.)** 우선 건축문화사랑 신문 독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문화사랑 신문이 타지역 신문보다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전일 광주건축사회장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2018년도 광주건축사회 15대 회장을 마치고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시절, 제5기 국건위의 중점과제인 인허가 제도 민간인양 운영 때문에 국건위와 국토부, 대한건축사협회, 건설기술연구소와 일문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대한건축사협회 대표로 참여했는데 아마도 그때 건축법을 바꾸려면 국건위에 참여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노력을 했고, 그 노력 끝에 제6기 국건위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저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앞으로 2년 임기 동안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규제 중심에서 활성화 중심으로 건축법을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상·하위법령의 내용이 상이하어 위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다수 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와 같이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할 수 있도록 할까 합니다. 둘째는 건축사사무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10년 후 대학생은 감소합니다. 5년제 만으로는 건축사사무소 직원 충원이 힘들 것입니다. 4년제 대학, 전문대학, 특성화고등학교(건축, 기계 등) 학생들이 건축계에 쉽게 발을 디딜 수 있도록 발판을 준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건축사님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답변2.)** 국건위는 2008년 제1기 정명원(교수) 위원장님부터 출범하여 벌써 10년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건축계의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5기 승효상 위원장님의 건축정책 방향 중 '좋은 공공건축이 선도하는 건축의 품격'이란 슬로건으로 국가 주요정책으로써의 건축정책 비중과 파급확대 등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제6기는 2020년 5월 출범했습니다. 6기 박인석 위원장과 함께 18명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호남에서 2명 위원이 위촉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제 제6기 위원회의 정책과 방향성, 비전과 정책방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건축계가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국토부와 경기 활성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국건위 위원으로서 건축정책 등 건축사님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을 잘하겠습니다.

**답변3.)**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국가의 건축정책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국건위의 경우 더더욱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합니다.

**답변4.)** 건축계가 한목소리를 가지고 광주광역시와 상생하면서 아름다운 광주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년 12월 기준, 9개 광역자치체, 14개 기초자치체, 5곳의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총괄건축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도 작년 한양대 건축학부 함인선 교수를 총괄건축가로 위촉하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건축계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총괄건축가 제도가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답변5.)** 광주라는 도시는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여야 합니다. 건축계 모든 분들께서 협력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기 좋은 도시, 행복도시, 정의로운 도시를 만드는 데 함께 하였으면 합니다.

**답변1.)** 우선 '영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책임감도 큼니다. 또 주변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 제가 위촉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간 살아 왔었던 과정들과 공부했던 것들을 위원회에서 잘 활용하여 국가건축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2.)** 제6기 국건위는 '좋은건축, 열린도시'라는 목표로 5기 국건위에서 혁신을 위해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제를 이어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린도시'라는 콘셉트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신도시에 학교를 지으면서 담을 없애고 커뮤니티 시설과 연결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파트 단지에 벽을 없애 각 단지들의 주민들간 누구나 자유롭게 왕래하도록 하여 소통의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건위가 하는 일이 많습니다. 지금 중점적으로 건축설계공모에 대한 개선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특히 소규모 공공건축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건축사 여러분들에게 보탬이 되는 것이 설계비 효율도 높이고, 설계 의도 구현비도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발주처에서 설계공모 공고 계획 시 전문가들로 구성된 운영위원들을 구성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공건축물 설계부터 신경 써서 아름다운 도시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3.)** 제6기 위원회가 이제 시작하는 만큼 별다른 당부의 말을 드릴 것은 없습니다. 만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력하여 국가와 국민들에게 좋은 건축정책을 제안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4.)** 지역건축계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 광주건축계에도 건축설계공모에 있어 공정성에 대해 문제 제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설계공모 규모가 설계비 2억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까지 확대됐습니다. 이에 지역건축계도 경쟁의 건강성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쟁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실력이 부족한데도 경쟁에 대한 두려움은 생각하지 않고 막연하게 불공정함이라고 주장하며 핑계를 대고는 합니다. 그런 배경을 만들게 된 현 상황을 우리는 반성하며 개선시켜 나가야 합니다. 수준 높은 작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서울이나 타지역 사람들도 설계공모에 수월하게 참여할 수 있게 개방하여야 합니다. 결국 광주건축계가 자극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하고 투쟁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어느 한 시골의 공중화장실에 간 적이 있었는데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이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게 과연 건축사가 한 것인가, 공정한 경쟁으로 선정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공의 일에 있어서는 가장 작은 부분부터 개방적이고, 경쟁적이어야 함을 상기시키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국건위에서 열린도시 관점에 맞게 학교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려 하는데, 우리 광주시도 학생 수가 줄어드는 학교나 폐교 등을 활용해서, 사업을 해보는 것은 어떠한지 제안해 봅니다. 우리 건축 업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봅니다.

**답변5.)** 국건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 중 하나가 건축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노력을 위해서는 광주에 있는 여러 건축 단체들이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책 소개 \_ 이 들 학생기자 / 조선대학교 건축학과

서울 건축 만담

최준석, 차현호 저 / 아트북스 / 2014. 11. 28.



서울 건축 만담, 이 책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책은 서울 곳곳의 건축물을 두고 두 남자의 대화로 진행되는 책이다. 이들이 치킨과 맥주를 함께하며 나누며 이야기했던 건축 이야기를 책으로 풀어낸 것으로, 릴레이 칼럼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책은 지난 겨울방학 기간 서울 소재의 한 건축사무소에서 실습을 하던 중 우연히 접한 책이다. 처음에는 단순히 '서울에서 한 달을 지내보는 것도 기회니 이 책에서 추천해주는 곳을 한 곳, 두 곳 다녀보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읽기 시작했다. 책을 읽고 직접 답사를 다니면서 건축물 혹은 장소에 서려 있는 이야기를 직접 체험하였고 이를 통해, 건축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 즉, 그저 건축학을 위한 서울 건축 가이드북이 아니라, 서울의 숨어있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서울이라는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에 변화를 준 책이다.

이 책에서는 총 32곳의 공간을 우리에게 소개한다.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밤샘 근무에 지친 건축가를, 출퇴근을 위해 바쁘게 환승하는 직장인들을 위로하는 공간인 '마포대교'에 대한 이야기로 만담을 시작한다. 마포대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40여 년 전 여의도 개발을 위해 태어난 다리에서 사살물 1위의 다리로 변하기까지의 한국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마포대교를 뒤로하고, 이들은 송례문의 복원을 보며 복원과 보존을 바라보는 자세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단순히 이전의 모습을 복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치유를 위한 '위로'가 먼저임을 언급한다. 즉, 변변한 공간의 과정 하나 없이, 없으면 다시 지으면 된다는 식으로 똑딱 다시 만들어져 버린 송례문은 그저 물질의 복제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송례문 외에 총정아파트, 남영동 대공분실, 북촌 등의 공간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다른 보존의 자세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어느 곳에서는 사라져가는 한옥을 보존하여 서울 내 최고의 관광지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다른 한 곳에서는 암울했던 과거를 잊은 채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며, 서울의 숨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러한 무거운 건축 이야기 외에도 첫사랑과의 데이트 장소를 이야기하며 추억을 떠올리는 이야기도 있으니, 건축 만담이라는 거창한 제목에 겁먹지 말고 꼭! 끝까지 읽어나가길 추천한다. 과거의 추억이 깃든 곳, 누군가의 사랑 이야기가 깃들어 있는 장소, 어려웠던 시절 위로가 되었던 공간 등 다양한 이야기를 이 책을 통해 만나보길 바란다.

한 편의 시 \_ 濟堂 추원호 /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너만 믿는다

노화로 쓰러진  
어머니 등에 업고  
오늘도 하주를 보낸다  
어느날 갑자기  
내 어깨에 손을 짚고  
등에 기대어 속삭이던 어머니  
태풍과 비바람에 견디며  
곁에서 늘 지켜보았던  
노환의 어머니  
아들이 산새소리 울리는  
이곳 건지산에서  
이대로 너의 등에 얹히고 싶다  
뿌리채 썩어가는 줄 모르고  
무심하게 그렇게 서 있었다  
비록 힘들지라도  
면지되어 진퇴가 될때까지  
나의 속삭임을 잊지 말아라.

세상사는 느낌 \_ 이정민 학생기자 /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BIM 운용전문가의 길로...

4학년 졸업을 앞두고 BIM 운용전문가2급 자격증을 준비하게 되었다. BIM은 계획, 설계, 엔지니어링, 시공, 유지관리, 폐기에 이르는 과정을 삼차원 모델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이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건축이 설계, 구조, 시공, 환경 등 각각의 학문으로 분류되어 공부하는 것은 별개의 학문으로 느껴졌다.

건축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작은 학문으로 구분된 분야들이 건물의 생애주기 동안 적재적소에 잘 적용되어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하나의 기술로 통합된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이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올해 초 BIM에 관한 프로그램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였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운용전문가2급 시험은 3월에 이루어졌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연기되어 3개월 연기된 6월 28일에 시험을 보게 되었다. 인터넷 강의를 통해 시험을 준비하다 보니 아무래도 현장 강의보다는 프로그램과 시험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됐다. 시험을 보기 전 지하철을 타고 가는 시간 동안 떨리고 불안한 마음을 붙잡으며 그동안 배운 내용들을 곱씹으며 시험 장소에 도착했던 것 같다.

다행히 시험을 보는 동안 눈에 익숙한 배운 내용들이 눈에 밝혀서 안도하며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갔다. 하지만 내 노트북 설정과 다른 부분이 있어 버벅 거리다가 시간을 조금 허비하기도 했다. 다 풀어 내지 못한 시험지를 아쉬운 마음을 담아 제출하며 시험 내용들을 곱씹어 보았다. 평소 능숙하게 작업했던 부분들을 정작 시험에서 작성하지 못해 아쉽기도 했지만, 3개월이나 더 미뤄졌던 시험을 드디어 해냈다는 생각에 후련함도 느껴졌다.

다가오는 7월에 시험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 비록 예상보단 잘 보진 못했지만 열심히 공부한 만큼 좋은 성적을 받길 내심 기대해보며, 앞으로 더 자세한 BIM 공부를 통해 건설 과정을 통합적으로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준불연 DK보드  검색 [www.dkboard.kr](http://www.dkboard.kr)

준불연가등급

DK본 EPS 단열재

외단열용(2' X 4')  
건축용(3' X 6')  
판별용(나등급)

DK보드는 독일 BASF 네오폴(비드법2종)에 특수 난연코팅과 난연액도포를 통해 탄생한 준불연 가등급 단열재입니다.

- 준불연재료 공인시험기관 인증
- 열전도율 : 0.034 W/m·k 이하
- 친환경 수성